

창세기(23)

9 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네게 말해주더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나무의 열매의 과실을 네가 먹었느냐? 하시니, 그 남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기에 내가 먹었나이다. 하더라.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행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하시니, 그 여자가 말하기를 그 뱀이 나를 속여 내가 먹었나이다 하더라.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네 배로 다닐 것이며 네 평생토록 흠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르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기름부으심을 통하여 저희에게 진리를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나이다. 아멘

아담과 이브, 남자와 여자, 첫 남자 첫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대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법정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통역을 해줄 때 판사가 무슨 말을 물으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은 하지 않고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yes 이냐 no 나? 대답은 안 하고 ‘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런 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답답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이렇게 했다 안 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 안하고 다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다른 외국인들도 그런지 몰라도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미국 사람들은 혼령이 되어서 할 말만 하는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설명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니까? 그게 결국 합리화하려는 겁니다. 내가 설명을 할 테니 알아들으라는 얘기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죄를 짓고 났을 때 아담과 이브의 모습은 바로 지금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임을 보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설명한다는 자체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아담의 경우는 자기 아내한테만 전가하는 게 아니고 아내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해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주기에 내가 먹었나이다.” 사실 오늘날도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원망을 많이 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가혹할 수 있는가? 이런 원망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그런 울무에 걸린 것이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옆에서 그래도 고깃국 냄새라도 맡고 살았는데, 그리고 마늘과 부추라도 먹고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광야에 우리를 내보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다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오늘이라 이른 때에 너희도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아라.” 사실 사람이 마음이 강박해진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에 그 환경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된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특별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왜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세상이 악할까? 내 자신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한데 내버려 두실까? 사실 내버려 두지 않았다면 나부터 죽어야 할 판인데 그걸 모르고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한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옛날에 유명한 철학자 있잖아요. 니체라는 사람은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은 돌아가셨다. 하나님은 심장마비가 나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벽에다가. 그리고 나서 1 년도 못 가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니체가 쓴 것을 짝 지워버리고 거기에다 ‘니체가 죽었다. 하나님 씬.’이라 써놓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은 죽었다. 니체 씬.’이라 해놓았는데 그 사람이 그걸 짝 지워버리고 ‘니체는 죽었다. 하나님 씬.’ 이렇게 해놓았던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해학적인 애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못하다 보면 내가 있는 환경 속에서 내가 지은 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시험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악에서 구해주옵시고.” 악에서 구한다는 게 뭘니까? 마음이 강박해지는 것에서 구해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하는 뜻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죄를 지을 때에 이상하게 나는 괜찮은데 누가 옆에서 그래서, 내 아내가 그래서, 자식이 그래서, 내 남편이 그래서, 또 목사들은 성도들이 그래서, 이렇게 전가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그때 빨리 돌이켜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참 겸손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여자도 보면 23 절,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행한 일이 어찌 된 것이냐?” 너는 무엇을 했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무엇을 했느냐? 그러면 내가 먹었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요. 나는

먹고 불순종했습니다.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브도 “뱀의 꼬임으로 먹었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요한계시록 20 장의 백보좌 심판에서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은혜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그러실 거예요. “너는 왜 생명나무를 안 먹고 왜 나를 안 먹고 선악과를 먹었느냐? 나를 먹으면 영생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랬느냐? 어찌 된 일이냐?” 그러실 때. “아, 내가 믿으려고 그랬는데 옆의 어떤 목사님이 이상한 짓을 해서 내가 시험에 들어 믿지를 못 했습니다.”라고 할 것입니다.

제가 전도를 나가 보면 예수를 믿고는 싶은데 목사나 전도사들을 못 믿겠다고 그런 사람을 한두 번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목사로서 당신에게 회개합니다. 목사를 대표해서 회개를 할 테니까 우리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합니다. 당신이 생선시장에 가서 생선을 살 때 다른 거 다 썩었는데 두 마리 싱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사오면 되지 썩은 것 때문에 불평할 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하나님 그 분은 절대로 썩지 않고 그 분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으니까 그 분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으라고 합니다.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마 그런 분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왜 나를 안 믿었냐?” 그러면 “아, 내가 믿으려고 했는데...” 할 거예요. 그럴 때 “너 어떤 종이 와서 전했을 때도 나를 믿으려 하지 않았잖아?” 그러시면 할 말이 없는 거지요.

우리 한 번 히브리서 4 장을 보겠습니다. 옛날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 하나밖에 주시지 않았어요. 생명과를 먹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게 되는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수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수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워낙 죄가 많기 때문이지요. 히브리서 4 장 12 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찢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 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그 분’이 뭘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 아납니까?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계해야 하는 그 분의 눈앞에.” 회계입니다. ‘회개’가 아니고 ‘회계’ account 다 계산하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회계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별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납니다. 이것은 상급 심판과 책망 받는 심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동기가 이 말씀 앞에 지금 내가 별거벗고 서서 지금 주님과 계산하는 게 편합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래서 고칠 것은 고치고 지금 해놔야지 나중에 하면 늦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고 그랬지요? 야고보서 기자가 거울을 보고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제하지 않는 사람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거울을 보고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잘못되었으면 빨리 고치라 이거지요. 고치지 않고 거울을 거둬 두고 이상한 소리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 말씀은 내가 무슨 뭐 이 지식을 가지고 남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말씀의 씻김을 받아 지금 깨끗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화장하라고 화장품을 주신 겁니다. 여자들 화장할 때 클렌징 크림으로 먼저 다 씻어 내리더라고요. 먼저 다 씻어내요. 기름기도 씻어내고 먼지도 씻어내고 그냥 이만큼 발라가지고 막 씻어내더라고요. 클리넥스티슈로 깨끗이 지우더라고요. 그 다음에 얼굴에 좋은 것을 바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은 씻어내는 말씀이 있고 화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천국제 기쁨표 화장품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으로 다 회개하고 씻고 나면 기쁨이 넘친다. 이게 참 센스 있는 유머죠. 사실 제가 어릴 때 신부 단장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들었어요. 저게 대체 무슨 말인가? 초등학교 다닐 때 칠팔십 된 목사님들이 그냥 두루마기 옷을 입고 나오셔서 “여러분, 신부 단장하셔야 됩니다.” 신부 단장?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저는 그때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참 어려서 교회를 다니며 들었던 말씀들이 지금 자꾸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그냥 앉으면 성경보고 앉으면 기도하고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것을 내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51 편을 보겠습니다. 아담과 이브와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아닙니까? 시편 51 편,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1 절 “오 하나님여, 주의 자애하심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온유한 자비의 풍성함을 따라 내 죄과들을 완전히 지우소서. 나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철저히 씻으시고 나의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내가 내 죄과들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그랬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요. 아담과 이브는 그런 말 하지 않았습시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다윗은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실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나단 선지자가 참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다윗 앞에 가서 비유를 들었잖아요.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 것을 많은 사람이 뺏어갔다고. 그러자 다윗이 그런 자는 당장 죽여버려야 한다고 했더니, 그 자는 바로 당신이라고 하니까 그냥 거기서 꼬꾸라졌잖아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게 왕 앞에서 함부로 어딜 갔다

드리내느냐고 나중에 뒤에서 슬쩍 얘기를 해야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말이지 귀뜸으로나 할 것이지 이랬을 텐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시편 51 편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침상과 요를 눈물로 적시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는 그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4 절을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네 배로 다닐 것이며 네 평생토록 흠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르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여기 지금 14 절과 관련되는 말씀이 이사야서 65 장에 있는데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우리 멋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 65 장 25 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사자가 송아지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흠이 뱀의 양식이 될 것이라. 그들이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지도 손상시키지도 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것은 언제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왕 중의 왕이 되어 이 땅을 천년 동안 다스리시고 그때 사탄은 저기 끝이 없는 깊은 구렁 속으로 갇혀버리고, 의만 거하는 땅에서 낙원이 회복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 내용은 낙원을 잃어버리게 됨으로 하늘은 괜찮은데 땅에 문제가 생겼다. 하늘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탄이 쫓겨났고, 그 사탄으로 인해 땅까지도 땅의 낙원마저 헐어버리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에는 사탄과 죄를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시고 다시 이 땅에 낙원을 회복하신다. 하나님의 때에 찬 경륜에 따라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 크리스천들을 보면 전혀 몰라요. 어제도 어떤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인데 제가 요한계시록 테이프를 두 개정도 줬는데 그걸 몇 번을 들었대요. 왜 이런 걸 자기한테 주냐고 그러더니 이제는 테이프를 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벌써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아직 못 갖다 줬는데, 저도 이게 참 이상해요. 왜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들도 이런 사실을 아는데 왜 크리스천이, 진리를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을까요? 이게 결국 사탄의 역사입니다. 속은 겹니다. 진리를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 진리를 받은 사람들이 전도를 더 못하는 거예요.

왜 이단들이 전도를 잘합니까? 제가 주님께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에요. 왜 이렇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의문점이 그겁니다. 진리를 선포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진리를 먹으면 못 견딜 텐데 왜 움직이지 않을까요? 이게 저의 question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 빛을 비추는 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분이 일단 가셨습니다. 지금은 대체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 장을 보면,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로부터 깨어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잠자는 자가 뭐니까? 생명을 받았는데 잠을 잔다 이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니까 일어나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는 것이지요. 크리스천들이 영적인 잠을 자면 세상의 죽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의 죄인들과 똑같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 절에 보면 “너와 여자 사이와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그랬습니다. 적의는 원수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냥 서로 만나면 죽이는 원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5 절은 결국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구절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메시아가 오실 구절인데요. 제일 먼저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는 창세기 1 장 20 절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이 있는 동물들과 땅 위 하늘의 넓은 창공에 나는 새를 풍성히 내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에서 풍성하게 나온 움직이는 모든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식하여 바다의 물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니라.”

이 다섯째 날에 생물들 코로 호흡하는 생물들을 최초로 창조하셨는데요. 그 창조물들이 어디서 났습니까? 물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거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러니까 최초에 생명은 물에서 나왔다. 우리 사람도 물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런데 다섯째 날에 생명이 나왔다. 이게 뭐니까? 결국은 넷째 날이 지나가고 다섯째 날이 되었을 때 생명이 오신다. 인류 역사 4000 년이 지나고 다섯째 날에 시작될 때 바로 아노 도미니(A.D.)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그때를 우리가 주후라고 서기 몇 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BC4 년 경에 오시면서 한 4 년을 빼야 되고 또 이 칼렌다는 로마인 칼렌다이기 때문에 유대력하고 다르지요. 좌우지간 인류 역사 4000 년이 지났을 때 생명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일부러

병이 들었을 때 바로 그를 찾아가 고쳐주지 않으시고 그가 죽기를 기다리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나흘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마르다가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살아났을 거라 했을 때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네가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전까지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인간에게는 생명이 없었던 것입니다.